

#19-168 **통신주 예상 배당수익률은?**

Analyst >>>>

성준원

(02) 3772-1538

jwsung79@shinhan.com

강수연

(02) 3772-3852

sykang@shinhan.com

통신사들의 2019년 연말 예상 배당수익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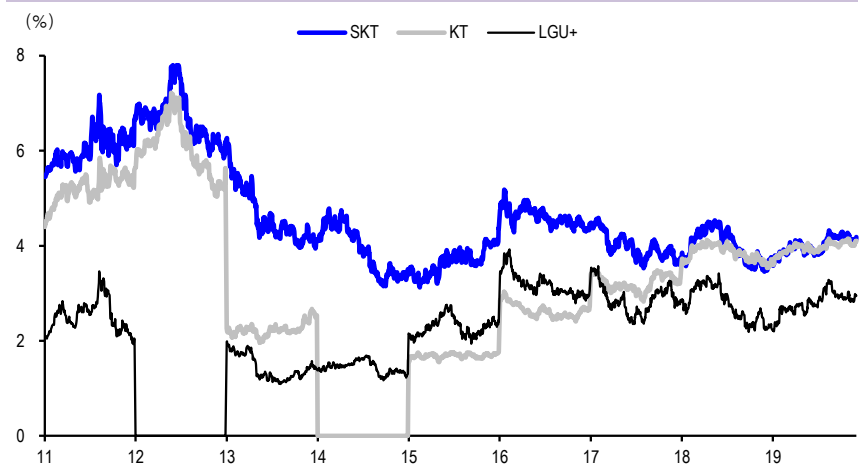
연말 배당 시즌이 돌아왔다. 통신서비스 시총 1등인 SK텔레콤은 19년 연간 주당 배당금(이하, DPS)이 10,000원으로 예상된다. 6월에 중간 배당 1,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12월 기말 배당 DPS는 9,000원이고 현 주가 기말 배당 수익률은 3.77%로 계산된다. KT는 기말 DPS로 1,100원을 가정하고 있다. 현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4.10%로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높다. LG유플러스는 DPS 400원으로 계산하면 현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2.95%로 가장 낮다.

12월 중에 배당을 받지 않고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가?

12월에 자주 듣는 질문이다. 배당 받을지 여부는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 차이가 많아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통신주의 주가 흐름은 12월 배당락 이후 1월 말까지 계속 보유했을 때 배당락 이전에 비해 하락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 배당락 전에 매도했다가 1월 말에 매수하는 것이 수익률 차원에서 좋은 경우가 종종 있다.

2013년 1월 vs. 2020년 1월

2012년 하반기부터 4G LTE를 통한 ARPU(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 상승이 나오면서 12년 12월 배당락 이후 13년 1월에는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은 SKT와 LGU+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었다. 13년의 ARPU 상승 기대감 덕분이었다. 19년 말 현재의 5G ARPU는 12년 말과 비슷한 흐름이다. 2020년 1월에도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은 SKT(017670)와 LGU+(032640)는 5G ARPU 상승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통신 3사의 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성준원, 강수연). 당사는 상회회사(SK텔레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당사는 상회회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